

『표준국어대사전』과 어문 규범

안상순

금성출판사 사서부장

1.

십여 년 전에 어느 저명한 문인이 우리나라엔 국어사전이 없다고 개탄한 적이 있다. 그가 한글학회나 일석(一石) 사전의 존재를 모르고 한 말이 아님은 물론이다. 기실 문세영 사전(1938) 이후 우리나라엔 수백 종의 크고 작은 국어사전이 간행되었다. 국어사전이 넘쳐 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그가 그렇게 한탄한 것은 사전다운 사전, 진정한 국어사전이 아쉽다는 사실을 아프게 꼬집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의 말이 비록 과장 어법으로 표현되긴 했어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비판이 기존 사전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의 국어사전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선 규범의 혼란을 들 수 있다. 사전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언어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말이 ㄱ사전에서는 표준어인데, ㄴ사전에서는 비표준어이고, 어떤 한자음이 ㄷ사전에서는 장음인데 ㄹ사전에서는 단음인가 하면, ㅁ사전에서는 띄어 쓰는 말을 ㅂ사전에서는 붙여 쓴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혼란은 정부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제정 발표한

뒤에 어느 정도 줄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사전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전의 질적 담보 상태에 있다. 오늘날 일부의 사전이 아직도 '양복'을 '서양식 의복'으로만 정의한다든지, '양말'을 '서양식 버선'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까지 하다. 이는 40~50년 전의 초창기 국어 사전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결과이다. 오늘날 '양복'의 개념은 '서양식 의복'에서 '남성용 서양식 정장'으로 그 외연이 좁아져 있다. '점퍼'나 '윈피스'와 같은 서양식 옷을 '양복'이라고는 부르지 않게 된 것이다. 또, '양말'을 버선의 하위 개념쯤으로 설명한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양말보다 버선 사용이 일반적이었던 개화기에나 알맞을 풀이가 아니던가? 이와 같은 사전의 무비판적 베끼기 관행은 오랜 고질의 하나이다.

또한 국어사전들은 국어학계의 학문적 성과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인색하였다. 40만 어휘를 웃도는 국어대사전에 조사 '를'의 풀이가 단 두 줄에 불과하다면, 그간의 형태론 분야에서 일구어낸 성과란 무엇이란 말인가? 국어사전은 국어학의 꽃이어야 한다. 국어학의 기름진 토양 위에 피어난 꽃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의 우리 국어사전은 학문의 업적을 흡수하는데 게을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2.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으로 약칭)의 탄생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언어 규범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사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국어연구원의 중차대한 사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 규범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이미 십 수 년 전에 그 해법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외래어 표기법』(1986), 『한글 맞춤법』(1988), 『표준어 규정』(1988)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원리적 총론으로 한 나라의 언어 규범 전체를 속속들이 감당하기란 처음부터 무리

한 일이었을 것이다. 개별적 어휘 하나하나를 확정하지 않고는 규범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낱말의 어휘를 모두 규범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일, 그 효율적 방법은 무엇인가? 국어연구원은 그것을 사전 편찬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하여 8년의 각고 끝에 국어연구원의 사전이 완성되었다. 수록 어휘 만도 무려 50만, 총 면수 7,000페이지를 훌쩍 뛰어넘는 국내 초유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외적인 부피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기존 사전을 능가하고 있다. 예문이 더할 나위 없이 풍부하고, 뜻풀이도 섬세하고 깊이가 있다. 기존 사전에서 놓쳤거나 채집하지 못한 어휘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일견, 『표준』은 언어 규범도 완성하고 사전의 질적 수준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단히 외람된 말이지만, 국어연구원에서 8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8년의 시간으로 언어 규범도 완성하고 사전도 완결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나는 이 두 가지 일이 서로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문 규범의 문제가 언어 사용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일이라면, 사전 편찬은 언어 현상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일이다. 어문 규범을 다루는 일이 반드시 사전 편찬을 수반하는 일도 아니고 사전의 형태로 나타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또, 사전은 분명 규범을 싣는 유용한 그릇이긴 하지만, 규범만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규범만을 싣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사전 편찬이란 지침을 세우고 원고를 쓰고 교정을 보는 지극히 실무적인 일이다. 그 자체로 많은 인력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일은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연구원에서는 8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문 규범 정비에 완벽함을 기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어연구원의 애초의 목적이 어문 규범의 전면적 완성에 있었다면, 사전 편찬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초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다. 곧, 한국어 어휘 전체를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라 하나하나 확정하는 일, 아울러 표준 발음을 일일이 밝히는 일, 어떤 말이 한자어인가 고유어인가 외래어인가

를 판정해 주는 일, 한자어의 경우 한자의 표준 자형을 제시해 주는 일, 단어의 장단음을 확정하는 일, 표제어로 올리는 말의 띄어쓰기 여부를 결정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일이라면 결국 사전 편찬 작업과 같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위의 일은 사전 편찬 작업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사전 작업은 바로 위의 일이 완료되는 곳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들이야말로 어문 규범의 핵심이다. 만일, 위의 일만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했었다면 규범의 문제가 훨씬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¹⁾

3.

그러나 국어연구원은 사전 편찬을 택했고 『표준』은 탄생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표준』의 규범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사전으로서의 공과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준』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자. 앞에서 얘기한 대로 『표준』은 국어사전의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래의 뜻풀이가 순환 정의에 빠지기 일쑤였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는데, 『표준』에서는 이런 점이 한결 지양되고 극복되었다. 문법 정보도 더욱 자세해졌다. 어떤 단어의 통사 환경, 선택 제한, 활용상의 제약 등을 아주 섬세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용언의 문형 정보는 일부 소사전에서 시도된 이후 대사전급에서 처음으로 본격 적용되었다. 발음 표시 역시 기존 사전이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까지 정보 영역을 넓히고 있다. 체언의 경우 조사와의 결합형에 대해, 용언의 경우 활용형에 대해 일일이 발음 정보를 달아 주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국어사전의 해묵은 결함이었던 용례의 부족도 『표준』은 말끔히 해소하였다. 양적

1) 규범만을 따로 작업했을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따른 한국어 어휘 목록 전체를 어원, 발음 정보와 함께 제시해 주면 될 것 같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간단한 주석을 달 수도 있겠다. 그 형식은 대체로 『외래어 표기법 용례집』이나 『표준어 모음』과 같은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으로나 질적으로 이만한 용례를 기존의 국어사전은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다. 『표준』의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의 사전을 위해 매우 소중한 것이 될 것이다.²⁾

한편, 『표준』의 탄생은 몇 가지 문제를 생래적으로 안고 있었다. 우선, 그동안 국어사전을 간행해 왔던 출판사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생각해 보라. 어느 사전이 국가가 발행한 사전을 당해 낼 것인가? 규범을 제정한 당사자가 낸 사전! 그 휘황한 권위 앞에 여타의 모든 사전은 빛을 잃었다. 심하게 말해 국가의 사전만이 '진짜'이고 그 외의 사전은 모두 '가짜'가 되어 버렸다. 더욱이 『표준』은 국가의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업 사전의 형태로 출간되었다. 그리하여 『표준』은 기존 사전과의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적어도 국어대사전에 있어서는 독점 품목이 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국어대사전은 고사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표준』 발간의 또 다른 문제는 국립국어연구원 내부의 것이다. 그것은 사전 자체를 관리하는 일이다. 사전은 일회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자도 바로잡아야 하고 내용의 오류도 수정해 주어야 하며 시사 변동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잔손질이 많이 가고 그다지 능률도 오르지 않는 끝도 없는 작업이다. 말하자면 영원히 완료되지 않는 미완성의 일이다. 문제는 그러한 작업이 대부분 어문 규범과 별 관계가 없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의 생몰년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어떤 식물의 꽃 피는 시기가 3월인지 5월인지를 따지는 일이 도대체 연구원 고유의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문제는 또 있다. 내용의 오류가 규범에 관계되었을 때이다. 가령, 표준어를 잘못 확정했다든지, 맞춤법을 잘못 적용했음이 명백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일 개정판에서 이것을 바로잡을 경우, 그것은 곧바로 맞춤법과 표준어가 바뀌는 결과를 빚게 된다. 사전을 내기 전까지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라는 총론으로 관리를 했지만 사전을 낸 이후에는 상황이

2) 지면 관계상 표준국어대사전의 어문규범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내용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부적 문제를 다루고 싶다.

씩 달라져 어휘 하나하나를 모두 책임져야만 하게 된 것이다. 표제어 하나만 고쳐도 맞춤법이 바뀌고 표준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쏟아질 비난을 생각해 보라. “허구한 날 맞춤법만 바꾸면 어떡하란 말이나.” “말 한 마디가 바뀌면 수많은 책을 다시 찍어야 하는데 그 손실은 천문학적인 것이다!” 등등...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연구원에서는 사전 편찬 자체에 너무 힘을 쏟은 나머지 어문 규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다.

4.

그렇다면 『표준』에 나타난 규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나는 앞서 얘기한 기초 작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4.1. 표제어의 띄어쓰기

사람들이 글쓰기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띄어쓰기이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조차 띄어쓰기라면 자신 없어 한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을 보면 띄어쓰기란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 이것이 전부다. 단서가 있다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제41항) 정도이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느끼는가?

(가) 그 사람은 떠날지도 모른다.

(나) 그 사람은 떠난 지가 오래다.

위 문장에서 (가)의 ‘지’는 붙여 쓰고 (나)의 ‘지’는 띄어 써야 옳다. 왜 그런가? (가)의 ‘지’는 ‘-르지’라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의 일부로서 단어가 아니고, (나)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띄어쓰기는 일정 수준의 문법적인 지식을 요하므로 사람에

따라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학교 문법 수준의 지식만 갖추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문법 지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그것은 합성어류의 띄어쓰기다. 가령, 합성어 ‘김치찌개’는 띄어 쓴 사전도 있고 붙여 쓴 사전도 있다. ‘금수강산/남녀노소/고등학교/배달민족/바늘방석...’ 등 사전에서의 띄어쓰기가 일치하지 않는 예는 무수히 많다. 사전들조차 서로 띄어쓰기가 다른 이러한 합성어에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교육책으로 1사전이든 2사전이든 어느 하나를 택해 무조건 그것을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정말 규범적인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짙짙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랜 숙제였다.

이에 대해 『표준』은 과감히 메스를 들이댔다. 『표준』의 논리는 명쾌했다. ‘모든 합성어는 붙인다’였다. 따라서 위에서 문제가 된 ‘김치찌개/금수강산/남녀노소...’ 등은 모두 합성어라는 판단에 따라 당연히 붙여 쓰게 되었다. 그런데 『표준』은 사전의 표제어를 합성어와 구로 구별하는 특별한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기존 사전들이 합성어로 보았던 것 중 어떤 것들은 합성어가 아니고 구라고 판정을 했다.

(다) 생활-수준, 해외-여행, 문물-제도, 미아-보호소

(라) 기계^제조, 먹이^사슬, 압력^단체, 순수^문학

『표준』에 따르면 (다)는 합성어, 곧 단어이고, (라)는 구이다. 무엇이 이 둘을 가르는가? 우리는 여기서 당혹감과 혼란에 빠진다. ‘생활수준’이 단어인데 ‘기계 제조’는 왜 단어가 아닌가? ‘미아보호소’조차 단어인데 왜 ‘순수 문학’은 구인가? 따져 보자. ‘생활수준’은 단순히 ‘생활의 수준’이며 ‘미아보호소’는 단순히 ‘미아를 보호하는 곳’일 뿐이다. 반면, ‘기계 제조’는 단순히 ‘기계로 하는 제조’가 아니고 ‘순수 문학’은 단순히 ‘순수한 문학’도 아니다. 즉, (다)는 $X+Y=XY$ 의 단순 결합형이지만 (라)는 $X+Y \neq XY$ 의 비단순 결합형이다.

전자는 결합한 뒤에도 의미가 그대로이지만 후자는 의미가 달라졌거나 알파가 더해졌다. 그러함에도 (다)는 단어가 되고 (라)는 구가 되었다. 혹시 합성어 기준이 거꾸로 적용되지나 않았는지 의아스러운 지경이다. 다른 예를 더 들어 보자.

(마) 모음-조화, 응용-과학, 조간-신문, 즐문-토기

(바) 자음^동화, 응용^미술, 일간^신문, 무문^토기

우리는 한층 더 혼란을 느낀다. 도대체 ‘모음조화/자음 동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 다 음운 변동을 나타내는 국어학 용어이다. ‘모음’과 ‘조화’, ‘자음’과 ‘동화’라는 낱말의 결합 유형도 매우 비슷하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각각 단어와 구로 운명이 달라졌는가? 우리는 도저히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응용과학/응용 미술, 조간신문/일간 신문, 즐문토기/무문 토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각각 달리 처리되어야 할 아무 이유도 없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고도의 논리적 원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설사 그런 원칙이 있었다 해도 일반 언중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띄어쓰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 규범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문이 되거나 고통의 질곡이 되고 말 것이다.

4.2. 표제어 선정의 문제

다음으로 표제어 선정이 형평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이 문제는 4.1.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사전 편찬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표제어 선정이다. 엄정한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기준이 없으면 편찬자의 자의에 흐르기 쉽다. 특히, 두 말 이상의 연쇄 형태는 단어인지 연어(collocation)인지에 따라 표제어로 오르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사전 편찬자의 고민은 대체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사) 모기떼, 쌀가게, 레몬주스, 무단출입, 어젯밤

(아) 양 떼/별 떼/개미 떼, 옷 가게/꽃 가게/반찬 가게, 오렌지 주스/
딸기 주스, 무단 횡단/무단 복제, 오늘 밤/내일 밤

위의 예에서, (사)는 『표준』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경우이고, (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그런데 양자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모기떼’가 ‘양 떼’나 ‘별 떼’보다 특별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지도 않고 결합도가 더 강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어젯밤’의 경우도 그렇다. ‘오늘 밤/내일 밤’은 실리지 않았는데 왜 ‘어젯밤’만 실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혹, 사 이시옷 때문이라고 강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밤/내일 밤’도 [-뺨]으로 된소리 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표제어 처리의 불균형은 합성 동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자) 날아오다, 뛰어오다, 달려오다

(차) 기어 오다

위의 경우에도 (자)는 표제어로 올라 있는데 (차)는 빠진 경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오다’ 앞에 이동 방식을 뜻하는 동사들이 결합된 말들이다. 오되, 날아서 올 수도 있고, 뛰어서 올 수도 있고, 달려서 올 수도 있으며, 기어서 올 수도 있다. 이들 사이에 본질적 차이란 아무 것도 없다. 그런가 하면 ‘기어가다’는 ‘날아가다/뛰어가다/달려가다’와 함께 『표준』에 나란히 올라 있다. 따라서, ‘기어 오다’도 표제어에서 빠져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다음은 ‘나다’가 명사와 함께 쓰인 예이다. 여기서도 표제어 선택의 불균형이 보인다.

(카) 조각나다, 소문나다

(타) 구멍 나다, 들통 나다

대체적으로 『표준』은 ‘명사+나다’ 형을 표제어로 많이 올리고 있지 않다. ‘성나다/끝나다/빛나다’와 같이 앞의 명사가 한 음절인 경우에는 비교적 폭넓게 수용하고 있지만, 두 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히 드물게 수용하고 있다. (카)는 그 드문 경우의 것인데, 그것도 (타)와 비교했을 때 형평을 잃고 있는 것 같다. ‘조각나다/구멍 나다’, ‘소문나다/들통 나다’에서의 ‘나다’는 각각 의미론적이든 통사론적이든 매우 닮은 꼴을 이루고 있으며 앞말과의 결합도도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들은 모두 단어로 채택되든가 모두 표제어에서 빼든가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표준』은 표제어 선택에 있어서 엄정한 원칙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사실, 이런 문제는 기존 사전에서도 허다히 발견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표준』만은 달랐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혼란을 바로잡자는 게 『표준』의 존재 이유였을 테니까.

4.3. 맞춤법, 표준어의 문제

『표준』은 맞춤법, 표준어에 있어서 대체로 기존 사전의 처리를 존중하고 있다. 즉, 기존 사전들끼리 일치하는 부분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서로 다른 부분만 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는 그간의 규범을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신중함은 바람직한 미덕이라고 본다. 다만, 언어 현실이 전혀 달라졌다면 기존 사전의 처리가 일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변화를 수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어미 ‘-(으)우’를 표준어로 수용한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본다.

(파) -(으)우 (어미) 하오할 자리에 쓰여, 동작이나 상태의 서술·의문·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주로 나이가 든 여성들이 순위 동서나 언니 등의 친근한 손윗사람을 대할 때 쓴다.³⁾

3) 여기서 손윗사람에게만 쓸 수 있다고 한정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60대 여자 노인이 젊은 새댁에게 “어디 가우?”라고 말할 수 있다.

‘-(으)우’는 그동안 기존 사전에 의해 방언 취급을 받아 왔던 것인데 이제야 겨우 정당한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말은 『표준』에서도 아직 비표준어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 맹송맹송하다, 오순도순, 야멸차다

위의 말들은 각각 ‘맹송맹송하다/오순도순/야멸차다’의 비표준어이다. 그러나 언어 현실은 이미 (하)의 형태로 가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현대 서울말을 폭넓게 조사한 뒤라야 가능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표준어에 관한 한 몇 명의 학자나 편찬자가 책상에 앉아 자신의 직관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표준』은 맞춤법의 적용이나 표준어의 확정에 있어서 때로 미심쩍은 처리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그 몇 가지 예이다.

(거) 달리다: ‘달다’의 사동사. 『목욕탕에 가는 남편에게 아이를 달려 보냈다.』

(너) 딸리다: ‘따르다’의 사동사.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딸려 보냈다.』

(거)와 (너)의 예문을 보면 문형 구조도 똑같고 의미 차이도 느끼기 어렵다. 이 둘을 모두 표준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달리다’의 주동사 ‘달다’는 “그 남자는 여자를 달고 나타났다.”의 예에서 보듯, 목적어인 여자를 종속적인 존재로 비하하는 어감이 강하다. 그러나 (거)의 예문에는 그런 어감이 전혀 없다. 따라서 ‘따르게 하다’의 의미를 가진 ‘딸리다’만을 표준어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더) 십수(-數): 벗짚이나 잎나무 따위와 같이 단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의 수량.

(러) 쉼: 잎나무, 꽃나무, 물거리 따위의 뿔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더)의 ‘접수’는 (러)의 풀이로 미루어 보아 ‘설수’로 고쳐져야 옳지 않을까?

(머) 두겁: 가늘고 긴 물건의 끝에 씌우는 물건. 『붓의 두겁.

(버) 붓두겁: 붓촉에 끼워 두는 뚜껑.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려면 (머)의 ‘두겁’이 ‘두껍’이 되든지, (버)의 ‘붓두겁’이 ‘붓두껍’이 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서) 부딪치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쳤다./한눈을 팔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쳤다.

(어) 부딪히다: 『파도가 뱃전에 부딪혔다./아이는 한눈을 팔다가 선생님과 부딪혔다. (편의상 예문만 일부 발췌)

‘부딪치다’가 능동사라면 ‘부딪히다’는 피동사이다. 그런데 (서)와 (어)의 예문을 보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내 생각으로는 파도는 바위나 뱃전에 ‘부딪치는’ 게 옳을 것 같고, 한눈을 팔다가 일으킨 충돌은 ‘부딪히다’가 옳을 것 같다.

지면 관계상 더 논하지 못하지만 규범으로서 좀더 검토될 만한 것으로 장단음을 포함한 표준 발음 문제4), 어원 문제5), 한자의 표준 자형 문제6) 등이 있을 것이다.

4) 오늘날 장단음 문제는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후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5) 어떤 말을 고유어로 볼 것인가 외래어(또는 한자어)로 볼 것인가는 매우 섬세한 문제다. 특히, 어떤 한자어가 발음 변화를 겪었을 때 그것을 속음으로 보느냐 고유어화한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아주 미묘한 것이다. 가령, 『표준』에서는 ‘자두’를 ‘紫桃’에서 온 말이로되 고유어화한 것으로 처리하면서도, ‘거동’의 경우는 표제항에서 ‘거동(擧動▽)’으로 처리함으로써 속음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5.

우리는 한 번도 규범 사전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무수한 사전이 있었고, 또 그것을 규범의 잣대로 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규범 사전은 없었다. 사전마다 규준이 다르다면 이미 그 사전들은 더 이상 규범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하여 사전의 혼란을 바로잡을 어문 규범의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표준』은 그 요청에 부응하여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규범 사전으로서 우뚝 선 것이다. 그러나 『표준』은 사전으로서 일구어 낸 몇몇 빛나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정작 궁극의 목적인 어문 정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리는 『표준』의 규범 처리가 좀더 치밀한 논리와 보편적 언어 현실에 바탕을 두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표준』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다듬고 키워 가야 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6) 오늘날 어문 생활에서 한자를 표기할 때 이체자들이 마구 뒤섞여 쓰이고 있다. 자전들조차 청자의 판정이 서로 다르다. 국어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 표준 자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